



[〈비핵화의 정치〉 교보문고 바로가기](#)

[〈비핵화의 정치〉 알라딘 바로가기](#)

■ 순서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비핵화의 정치』 소개 ————— 2
- 간략목차 ————— 3
- 세부목차 ————— 4
- 도해목차 ————— 8
- 지은이 소개 ————— 9
- 본문 미리보기 ————— 10

■ 지은이 **전봉근(국립외교원 교수)**

출간일: 2020년 7월 16일 | ISBN: 979-11-6193-029-9 | 가격: 22,000원 | 책크기: 152*225 | 페이지: 총 488페이지

“비핵화의 이론, 동기, 사례를 통해 북한 비핵화 방향 제시”

2018년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되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 포기 이후 제재해제”, 또는 “일부 제재완화와 동시에 비핵화”의 두 시각이 충돌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답보상태에 있다. 북한의 비핵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답보상태에 있는 비핵화 과제의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핵무기의 가치와 비핵화의 동기, 핵포기 국가 사례, 북한의 비핵화 방향 등을 심층분석하고 있다. 핵무기는 재래식무기를 뛰어넘는 전략무기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핵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한 국가의 사례에는 선 비핵화, 후 경제제재 해제 방식인 리비아 모델, 정치지도자의 결정에 의한 남아공 모델, 소련 방 해체 후 자국 영토에 있던 핵무기를 포기한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 모델, 단계적 비핵화와 제재를 축소하고 단계적 보상을 하는 이란 모델 등이 있다.

이 책의 특징

- 핵무기와 핵개발의 동기 설명
- 비핵화 방식과 사례 제시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비핵화 방식 제안

1993년 제1차 북핵위기를 시작으로 북핵문제는 30여 년 동안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다. 물론 2018년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했지만, 현재는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책은 이러한 북핵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핵포기 이론과 해외 사례에서의 경험, 한반도와 동북아 세력정치 현실을 반영해 지난 북핵협상 과정과 비핵화 정책 옵션을 평가한 후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제시하고 있다.

간략목차

서론

1부 비핵화, 그것이 알고 싶다

- 1장 핵무기 시대의 개막
- 2장 국가의 핵무장과 핵포기 결정 배경
- 3장 핵 아마겟돈의 공포와 NPT 출범
- 4장 핵폐기와 핵검증의 방법과 절차

2부 해외 비핵화 사례에서 배운다

- 5장 리비아 사례: 일괄 비핵화
- 6장 남아공 사례: 주동적 비핵화
- 7장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사례:
협력적 비핵화와 협력적
위협감축(CTR)
- 8장 이란 사례: 부분 비핵화

3부 북한은 비핵화할까?

- 9장 북한의 핵개발과 핵전략
- 10장 북핵협상의 악순환과 북핵외교
실패의 교훈
- 11장 KEDO 경수로사업의 전말과 교훈
- 12장 북핵 시나리오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전략

결론

부록

세부목차

서문

서론

1. 한반도를 뒤덮은 북핵 위협과 전쟁 구름
2. “김정은 위원장, 절대 핵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3. 왜 비핵화를 해야 하나
4. 역사와 이론에서 북핵 해법을 찾는다
5. 새롭게 열린 비핵화 ‘기회의 창’

1부 ● 비핵화, 그것이 알고 싶다

1장 핵무기 시대의 개막

1. 인류 최초의 ‘트리니티 핵실험’
2. 핵확산의 시대: 수평적 핵확산과 수직적 핵확산
3. 핵무장과 핵전략
4. ‘핵보유국’ 개념 논쟁: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는 이유

2장 국가의 핵무장과 핵포기 결정 배경

1. 핵확산과 핵비확산 이론 동향
2. 안보동기모델
3. 안보동기모델에 대한 반론
4. 규범동기모델
5. 정치결정모델

3장 핵 아마겟돈의 공포와 NPT 출범

1. '핵무기 없는 세상'의 꿈
2. NPT 출범과 핵비확산 성과
3. 핵실험금지조약 체결 경과와 성과

4장 핵폐기와 핵검증의 방법과 절차

1. 핵폐기의 유형과 방법
2. 검증 방법

2부 ● 해외 비핵화 사례에서 배운다

5장 리비아 사례: 일괄 비핵화

1. 리비아의 핵무장 배경과 동향
2. 비핵화 결정 배경과 이행
3. 핵포기 실행과 비핵화 이후
4. '리비아모델'의 귀환

6장 남아공 사례: 주동적 비핵화

1. 남아공의 핵무장 동기와 경과
2. 남아공의 핵포기 배경과 정책결정
3. 핵폐기와 핵검증 방법
4. 남아공 사례의 정책적 함의

7장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사례: 협력적 비핵화와 협력적 위협감축(CTR)

1. 구소련 해체와 신생 핵국의 등장
2.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논쟁과 실행 지연
3. 카자흐스탄의 일관된 비핵화 결정과 실행
4. 구소련국 비핵화를 위한 CTR의 역할과 북핵에 대한 함의

8장 이란 사례: 부분 비핵화

1. 이란의 핵개발 배경과 핵능력
2. 이란핵합의(JCPOA) 체결 배경과 특징
3. 이란의 핵포기 배경
4. 트럼프의 이란핵합의 탈퇴

3부 3부 ● 북한은 비핵화할까?

9장 북한의 핵개발과 핵전략

1. 북한의 핵개발 배경
2. 핵개발 경과와 핵능력
- 3.金正은의 병진노선과 핵무장
4. 북한의 핵전략 유형과 특징

10장 북핵협상의 악순환과 북핵외교 실패의 교훈

1. 초기 북핵 의혹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 제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 북미기본합의
3. 6자회담과 6자합의
- 4.金正은-트럼프 북미정상회담 경과와 성과
5. 북핵협상 악순환 패턴과 원인

11장 KEDO 경수로사업의 전말과 교훈

1. 북한의 경수로 요청과 대북 경수로 제공 결정
2. KEDO 경수로사업의 경과와 종료
3. KEDO 경수로사업의 실패 원인과 교훈
4. KEDO 경수로사업의 성과와 의의
5. 북한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 권리' 논쟁과 경수로사업 재개 가능성

12장 북핵 시나리오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전략

1. 북핵문제 해결의 긴급성과 중대성
2. 북핵협상과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기회요인
3. 북핵정책 옵션과 한국의 선택
4.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로드맵 제안

결론

부록

-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 (1992.1.20)
- 제네바 북미기본합의 (1994.10.21)
- 9·19공동성명 (2005.9.19, 베이징)
-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13합의, 2007)
-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10·3합의, 2007)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2018.4.27)
-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2018.6.12)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소개

도해 목차

표

- 1.1 중소 핵무장국 핵전략의 유형과 특징
- 4.1 시간 및 독자성 변수에 따른 핵폐기 유형과 사례
- 8.1 이란핵합의(JCPOA) 주요 내용
- 8.2 이란핵협상과 북한핵협상 비교
- 9.1 북한 주요 핵시설과 용도
- 9.2 북한 풍계리 1~6차 핵실험 비교표
- 10.1 6자회담 차수별 주요 성과와 배경 (2003~2008년)
- 10.2 북핵협상 악순환 패턴
- 10.3 정부별 북핵정책 특징과 문제점
- 12.1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도표

- 1.1 세계 핵탄두 재고 추정치, 1945~2018년
- 1.2 018년 세계 핵탄두 재고 추정치
- 1.3 미국 핵무기 보유량, 1962~2017년
- 8.1 이란의 경제지표 추이: 2012년 전후 비교
- 9.1 북한 주요 핵·미사일시설 현황
- 9.2 북한이 보유 또는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 종류
- 9.3 북한 미사일 종류별 사정거리
- 12.1 북핵 시나리오와 정책옵션

사진

- 1.1 나가사키 투하 플로토늄 핵폭탄 ‘팻맨’의 모형
- 1.2 ‘내폭형’ 플루토늄 핵폭탄의 내부 구조
- 1.3 ‘포신형’ 고농축우라늄 핵폭탄의 내부 구조
- 1.4 핵폭발 이후의 히로시마 모습

지은이 소개

전봉근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외교학 석사

미 오레곤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국립외교원 교수(외교안보연구소 안보통일연구부)

한국행정정책학회 부회장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이사

대통령비서실 국제안보비서관

KEDO 뉴욕본부 전문위원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직무대리 역임

주요 논저

『미중 경쟁 시대 한국의 중간국 외교전략 모색』(국립외교원 정책연구시리즈, 2019)

『중소 중추국 외교전략과 한국 외교』(국립외교원 정책연구시리즈, 2018)

“북한 핵 교리의 특징 평가와 시사점”(국립외교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

“북핵위기의 테자뷰와 북핵협상 악순환 차단 전략”(국립외교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

“미중 경쟁 시대 정체성 기반 국익과 신 외교원칙 모색”(국립외교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19) 외 다수

서론

1. 한반도를 뒤덮은 북핵 위협과 전쟁 구름

북핵문제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동북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 위협하는 매우 긴급하고 엄중한 외교안보 숙제이다. 북한의 핵무장이 완성되면,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과 외교적 핵강요(nuclear coercion)에 시달리게 된다. 한반도 핵시대에 전쟁의 참화는 과거 재래식 전쟁의 참화에 비할 바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한반도 현실은 높은 전쟁 가능성과 핵무기의 사용 위협이다. 이 양자의 결합은 한반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만들었다. 한반도는 분단 때문에 원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데다, 충돌 발생 시 강대국과 핵무기가 개입하게 되면, 바로 세계대전과 핵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많은 안보전문가들이 2017년 한반도정세를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전쟁위기로 보았다. 또한 많은 국제안보전문가들이 당시 동북아의 안보

상황을 제1차 세계대전 전야에 비유하였다. 실제 브레넌(John Owen Brennan) 전 미 CIA 국장은 2017년 10월 한 인터뷰에서 북미 충돌 가능성을 20~25%로 평가하며, 전쟁을 경고했다. 만약 한 개인에게 유행 감염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확률,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20~25%라면 어떻게 반응할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패닉에 빠지고 일상생활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여름 당시 전쟁위기가 고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되며,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미국과 북한에 대해 전쟁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사실 그동안 한국정부와 정치지도자가 전쟁을 운운하는 것이 터부시되었다.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이 다급한 발언은 당시 실제 전쟁 가능성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추정하게 한다.

2010년대 들어 점차 고조되었던 북핵 위협과 전쟁위기를 되짚어 보자.

첫째, 북한은 탈냉전기 들어 안보·경제·식량·에너지 위기 등으로 인해 정권위기·체제위기·국가위기의 삼중 위기를 맞게 되었다. 북한은 이런 삼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 핵무장을 선택하고, 이를 위해 매진했다. 마침내 북한은 2006년 10월 첫 핵실험에 성공하고, 2010년대 들어 핵무장을 법제화하고, 국가정체성까지 부여했다. 김정은은 2012년 개정헌법 서문에서 ‘핵보유국’을 명시한 데 이어, 2013년에 일명 ‘핵보유국법’을 제정하여 핵무장을 법제화하였다. 같은 해 최고국가노선으로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노선’을 채택하였고, 2016년 7차 당대회에서도 ‘병진노선’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2012년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이 가속화

1부

비핵화, 그것이 알고 싶다

- 1장 핵무기 시대의 개막 _ 17
- 2장 국가의 핵무장과 핵포기 결정 배경 _ 47
- 3장 핵 아마겟돈의 공포와 NPT 출범 _ 83
- 4장 핵폐기와 핵검증의 방법과 절차 _ 110

핵무기 시대의 개막

지난 수십 년째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최대 외교안보 과제는 북핵문제이다. 그만큼 국제정치와 전쟁에서 핵무기가 갖는 정치군사적인 비중은 절대적이다. 세계무대에서 핵무기가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사실 1945년 핵무기의 발명을 기점으로 세계정치와 국제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전쟁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할 위험성마저 생긴 반면, 그 엄청난 파괴력으로 인해 오히려 강대국 간 거대 전쟁의 가능성은 현저히 줄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이 장은 다음과 같이 핵무기의 발명과 핵무기 시대의 개막에 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핵무기 시대를 연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미국의 핵무기 독점기가 단기간에 끝나고, 어떻게 급속히 핵확산이 발생했나? 냉전기 미국과 소련 간 핵무기 경쟁은 어떤 결과를 낳았나? 오늘날 핵무장국의 동향과 핵무기 재고는 얼마나 되는가? 핵무기의 과도한

되었다. 이런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중국은 자신의 높은 경제력을 활용하여, 핵전력의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전력 현대화를 추구하고, 또한 미국의 강화된 재래식 전력에 대응하도록 자신의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상기 중소 핵무장국의 핵전략 유형을 표 1.1에 요약 정리했다.

4. ‘핵보유국’ 개념 논쟁: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는 이유

국내외 핵전문가들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한 ‘핵무장국’ 명단에 북한을 포함하는 데 이견이 없다. 미국정부도 북핵문제를 논의하면서 “북한이

표 1.1 중소 핵무장국 핵전략의 유형과 특징

핵전략 유형	핵태세 · 교리 특징	환경	사례
비대칭 확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선제공격 가능 • 핵선제공격, 핵 일차 사용으로 억제력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의 핵·비핵력 우세 • 전쟁억제·거부가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 북한 • 미국
최소억제/ 확증보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 일차불사용 원칙 • 2차 핵타격력 유지 • 상대 도시 공격용 • 중간 핵전력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 안보 위협도 • 군사용으로서 핵력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인도
축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군사적 용도 중심 • 후원국의 핵억제력에 안보 의존 • 상징적 핵전력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국의 우세한 핵·비핵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공 • 영국 • 핵개발 초기 이스라엘, 파키스탄

년 리비아 사태와 카다피 대령의 종말에 크게 주목했다. ‘리비아모델’에서 북한이 얻은 최고의 교훈은 핵을 포기하면 리비아와 카다피의 운명을 맞게 된다는 것이었다.

4. ‘리비아모델’의 귀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모델’

2018년 6월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리비아모델’이 다시 주목 받았다. ‘리비아모델’을 부활시킨 장본인은 바로 미 국가안보팀에 새로 참여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다. 볼턴은 2000년대 초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군축·국제안보차관과 주 유엔대사를 역임했다. 그 당시에 강경보수파 네오콘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심지어 2006년 유엔대사로 지명될 당시 공화당 상원의원조차 지명 인준을 거부했고, 결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상원후회를 이용하여 겨우 임명했다. 볼턴 대사는 결국 상원인준을 받는 데 실패하여 그 해 말에 사임했다.

2018년 5월 들어 국가별로 갖가지 북핵 해법을 제시하면서, 북핵 해법을 둘러싼 신경전이 서서히 가열되고 있었다. 우선 문재인정부는 북핵 동결 이후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2단계 비핵화’ 방안을 선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중정상회담(2018.3.26)에서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비핵화 해법으로 제시했다.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이 선의를 갖고 우리의 노력에 대응하며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 조치를 취하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동안 북한이 미국에게 ‘선

적대시정책 포기’와 ‘선 핵포기 절대불가’를 일관되게 주장한 데서 다소 입장 변화가 있었다. 이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주석에게 직접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는 남한, 북한, 중국이 비슷한 생각이었다. 물론, 단계적 비핵화조치의 내용, 비핵화조치 속도, 완전한 비핵화 시한 등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크게 달랐다. 그렇지만 비핵화 대화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서로 쟁점을 부각시키지 않았다.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도 초기에는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핵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비핵화 목표 개념으로만 제시할 뿐 아직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해법 또는 구체적인 비핵화조치에 대해서는 발언을 삼갔다. 그런데 비핵화 논쟁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것은 볼턴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 맥마스터(Herbert McMaster) 장군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2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갓 지명된 볼턴은 〈라디오 프리 아시아(Radio Free Asia)〉와의 인터뷰(2018.3.20)에서 ‘리비아 해법’을 강력히 주장했다. “북핵의 즉각적이고 일괄적인 폐기”뿐만 아니라, 리비아와 같이 “일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이를 해체하여 즉각 미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리비아식’ 모델도 다양한 해석이 있다. 볼턴은 상기 인터뷰에서 ‘리비아식’을 “어떤 보상과 보장도 없이 핵을 일거에 포기하고 모든 핵시설과 물질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리비아식’은 볼턴의 해석과 다르다. 실제 리비아가 핵을 포기한 경과도 볼턴의 해석과 차이가 있다.

실제 리비아의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정치·경제

2. 이란핵합의(JCPOA) 체결 배경과 특징

2013년 이란핵협상의 급진전

미국의 이라크 공격 직후, 2003년 5월 이란은 비밀리에 미국에 접근하여 이란 핵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이란은 미국의 안전보장 제공과 외교 정상화를 조건으로 이란 핵활동의 투명한 공개와 하마스(Hamas)와 헤즈볼라(Hezbollah) 집단에 대한 지지 철회를 교환하는 ‘대타협(그랜드바겐)’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 그런데 당시 부시 행정부는 동 제안의 진위 여부와 진실성을 의심하여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EU가 이란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섰다. EU를 대표하여 영, 불, 독(EU-3)이 이란과 핵협상을 개시하여, 2003년 10월 21일 ‘테헤란선언’을 채택하고, 처음으로 상호 관심사에 합의했다. 테헤란 선언에서 이란은 추가의정서 가입 및 이행, 농축 일시 중단 등에 합의하고, 유럽국은 이란의 핵활동 권리를 인정하고, 핵활동의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기로 합의했다. EU-3과 이란 간 핵협상이 계속되어 2004년 11월 ‘파리합의’를 채택했다.

한편, 2005년 보수강경파 아흐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 대통령은 취임하자 핵활동을 재개시켰다. 이때 파리합의가 붕괴하고, 이란의 안전조치협정 위반에 대한 유엔제재가 부과되었다. P5+1과 핵협상이 결렬되자 이란은 농축활동을 재개했다. IAEA가 이란의 군사용 핵프로그램 가능성을 경고하고, 안보리의 제재가 부과되면서 제2차 이란 핵위기가 불거졌다.

이란은 오히려 핵활동을 가속화했다. 2006년 4월 원전용 핵연료를 위한 3.5% 농축에 성공하고, 2006년 8월 아락 지역에 중수로 건설을 개

도표 9.1 북한 주요 핵·미사일시설 현황



북한의 핵개발 고도화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은 실제 북한이 핵무장 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이정표가 되었다. 사실 북한의 1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2005년 ‘9·19공동성명’이 있었기 때문에 한미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않았다. 하지만 2차 핵실험 이후, 북한 비핵화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급격히 퍼졌다. ‘9·19공동성명’에 따른 북한의 핵포기 약속은 문서상으로 유효했지만, 북한은 공공연히 핵무장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강한 만류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 국방위 대변인 성명(2010.7.24)은 “우

찾아보기

1

1차 핵타격(first strike) 34-35, 37, 40-41, 72, 173, 291, 407

2

2·13 6자합의 329, 351

2차 핵타격(second strike) 35, 37-38, 41, 72, 173, 407

4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 58, 107, 303, 335-336; 4·27 판문점선언 340

6

6·12 북미정상회담 13, 58, 107, 116, 119, 121, 164, 228, 243, 303, 335-337, 340, 354

6자회담 113, 282, 325-332, 384, 396-401

9

9·19 6자공동성명 283-284, 328-329, 332, 385, 393, 397-398, 401

10·3합의 329

C

CTBT ㉮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참조

CTR ㉮ 협력적 위협감축 참조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119, 122, 340, 354, 424

I

IAEA ㉮ 국제원자력기구 참조

ICBM ㉮ 대륙간탄도미사일 참조

J

JCPOA ㉮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란핵 합의 참조

K

KEDO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참조

M

MTCR ㉮ 미사일기술통제레짐 참조

N

NPT ㉮ 핵확산금지조약 참조

Y

Y 플랜트 170, 186-187, 192

ㄱ

갈루치(Robert L. Gallucci) 312, 389

강석주 312, 318, 367, 384

개성공단사업 394

경수로 227, 280-281, 287, 318-322, 330, 347, 352, 355, 363-364, 380, 382, 385-390, 392, 395, 397-401; 경수로사업 227, 230, 280, 363, 370-375, 377, 381-390, 392-396, 398, 402;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371, 381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 179, 204, 206

공격적 현실주의 4, 208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69, 87, 91-92, 96, 126-131, 168, 186-188, 191-192, 195-198, 234-235, 240-241, 244-245, 248, 279-280, 306-311, 313-319, 350, 364-366, 369, 376, 384, 390-400; IAEA 사찰 131, 193-198, 232, 236, 259, 304, 306-307, 313, 315-316, 347, 350; IAEA 안전조치 87, 89, 91, 115-116, 126-128, 153, 189, 195, 236, 314, 318, 375, 400; IAEA 안전조치협정 304-305, 311, 323, 347, 367

규범모델 47, 73, 201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224

금강산관광사업 394

김대중 324-325

김영남 310, 324

김영삼 317, 370, 379

김일성 82, 275, 280, 282, 317-318, 320, 336, 374, 395, 437

김정은 2-4, 7, 82, 107-108, 119, 157,

159-160, 167, 243, 271, 277-278, 287-292, 297, 303, 335-337, 341-346, 403, 407-408, 412-416, 432-433

김정일 82, 310

ㄴ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220, 222

남북기본합의서 305

내적균형(internal balancing) 61

넬루(Jawaharlal Nehru) 101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247

노무현 385, 425-426

노태우 356

뉴 스타트(New START, 신전략무기감축협정) 30-31, 40

ㄷ

대량살상무기(WMD) 77, 140, 144-146, 149-154, 224, 226, 230-231, 29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3, 12, 30, 33, 108, 122, 157, 205, 215, 218, 224, 277, 287, 291, 293, 414-415, 427, 432, 437

대북 제재결의 343

드골(Charles De Gaulle) 26

드클러크(Frederik W. de Klerk) 49, 57, 81-82, 112-113, 170, 178, 181-187, 190-196, 198, 200-201

드클러크(F. W. de Klerk) 167

ㄹ

로하니(Hassan Rouhani) 242, 252, 255-256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19

찾아보기 465

리비아모델 119, 156-161, 164-165, 340, 345
리용호 343

□

마오쩌둥(毛澤東) 27
만델라(Nelson Mandela) 181, 185
맥나마라(Robert McNamara) 85
맨해튼 프로젝트 17, 19, 23, 26, 167
문재인 2, 120, 159, 335-337, 342, 356, 403, 411, 413-414, 418, 421-426, 428, 434
미사일기술통제레짐(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215-216
미사일방어체제 37-38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4, 208-209

ㅁ

바루크 플랜(Baruch Plan) 87
반탄도미사일조약(ABM: Anti-Ballistic Missiles) 95, 125
방코델타아시아(BDA) 329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151
벨라베자조약 204
벼랑끝 전술 320, 347, 350-151, 354, 362
병진노선 2, 108, 278, 290, 407, 412, 415-416
보타(Pieter Willem Botha) 172, 177
볼턴(John Bolton) 13, 111, 135, 159-165, 222, 340, 345, 427
부분핵실험금지조약(Partial Test-Ban Treaty) 101, 124
부시(George W. Bush) 38, 103, 141-146, 150-152, 159, 225-226, 240,

248, 251, 262, 273, 276, 281-282, 321-325, 363, 389, 391

북미기본합의문 352
불량국가 38, 67, 73, 108, 143-144, 147, 198, 249-250, 256, 274, 312, 314, 351, 391, 397

브레넨(John Owen Brennan) 2, 410
블레어(Tony Blair) 145-146
비대칭 확산(asymmetric escalation) 40

ㄴ

상한선핵실험금지조약(Threshold Test Ban Treaty) 102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34; 상호확증파괴(MAD) 전략 37-38
생물무기금지협정(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91
샤리프(Nawaz Sharif) 55
세력균형이론 410
세력전이이론 410
수소폭탄(hydrogen bomb) 3, 12, 21, 24-27, 37, 102, 277, 287, 291, 403, 414-415, 437
수직적 핵확산(vertical nuclear proliferation) 23, 108
수평적 핵확산(horizontal nuclear proliferation) 23, 108
스탈린(Joseph Stalin) 23
시진핑(習近平) 160
실라드(Leó Szilárd) 19
싱가포르합의체제 353

ㅇ

아랍의 봄 15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322
 아이비 마이크(Ivy Mike) 24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87, 91, 168, 233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9
 아인혼(Robert Einhorn) 157
 악의 축 239, 321, 389, 391
 안보모델 47, 53, 64-65, 68-72, 76, 78-79, 199-200, 203, 209
 안전조치협정 315
 열핵폭탄(thermonuclear weapon) 24
 영변 핵시설 343, 367
 옐친(Boris Yeltsin) 205
 오바마(Barack Obama) 84, 154, 158, 169, 242-243, 248, 253-255, 412
 오펜하이머(J. Robert Oppenheimer) 18
 완전한 핵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160
 외적균형(external balancing) 61-62
 원자력공급자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69, 175, 237, 274
 월츠(Kenneth Waltz) 67
 이란모델 264
 이란핵합의(JCPOA) 63, 98, 113, 116, 232, 243, 246-250, 253-254, 257-261;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참조
 이란혁명 233
 이슬람혁명 234, 239, 242, 251

ㄹ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93
 잠수함발사 핵미사일(SLAM) 26-27
 재래식무기 20, 28, 35, 37, 68, 275, 297
 전략무기 20, 206, 213, 225
 전략무기감축조약 I(START I: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206-207,

224

전략무기감축조약 II(START II) 95
 전략핵무기제한협정(SALT) 125
 전략핵탄두 31, 205
 전술핵탄두 30, 31
 정치결정모델 47, 78-79, 81
 제1차 북핵위기 281, 310, 320, 347, 380, 390
 제2차 북핵위기 282, 321, 380, 385
 제네바 북미기본합의(Agreed Framework) 93, 112, 118, 248, 261, 247, 262, 276, 280, 282, 320-323, 325, 352, 363, 371-372, 380-382, 389, 393, 401
 중거리핵전략조약(INF) 125
 중동비핵지대(Middle East Nuclear Weapon Free Zone) 97, 100
 중수로 171, 238, 240, 244, 280-281
 중장거리미사일 415
 증폭핵분열탄 287
 지하핵무기실험제한조약(Treaty on the Limitation of Underground Nuclear Weapon Tests) 101
 짜르 봄바(Tsar Bomba) 25

ㄴ

처칠(Winston Churchill) 26
 최소억제(minimum deterrence) 41

ㄷ

카다피(Muammar Gaddafi) 4, 112, 136-137, 141, 144-145, 147-152, 154-159, 164
 카자흐스탄모델 222
 카터(Jimmy Carter) 58, 317, 374
 칸(A.Q. Khan) 138, 235
 케네디(John F. Kennedy) 5, 69, 85, 87

찾아보기 467

케리(John Kerry) 141
 켈리(James Kelly) 322, 384
 코피작전(bloody nose operation) 421
 크라우추크(Leonid Kravchuk) 213
 크리스토퍼(Warren Christopher) 378
 클린턴(Bill Clinton) 56, 103, 142, 151, 208, 248, 273, 317-318, 379, 389

ㄷ

통미봉남 272
 트럼프(Donald Trump) 3, 111, 119, 160-161, 164-165, 232-243, 247, 257-261, 264, 269, 291, 335-337, 341-342, 344-346, 403, 412-414, 421-422, 424, 427
 트리니티 핵실험 18
 팀스피리트훈련 347, 367

ㄹ

평화적 핵폭발(PNE: Peaceful Nuclear Explosion) 170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 77-78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232, 244, 247, 257-258; 이란핵 합의 참조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31, 33, 95, 101-102, 104, 106-108
 폼페오(Mike Pompeo) 121, 342
 푸틴(Vladimir Putin) 62

ㅎ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303, 342-343, 344, 428, 432-433
 하마스(Hamas) 240

하메네이(Ali Hosseini Khamenei) 242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420, 427, 429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1, 51, 269, 304, 306-307, 309-310, 316, 319, 323, 325, 347, 352, 375, 380, 393, 417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321, 323, 325, 363-364, 373, 377-386, 388-390, 393-396, 398
 핵개발 연쇄반응 54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13, 25, 38-39, 44, 67, 77, 83, 88, 90-91, 94-96, 98, 99-100, 102, 104, 110, 115, 125, 223, 253; 핵군축협정 124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68, 84-85, 90
 핵무기의 지휘통제권 36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85
 핵보복 37-38, 290, 296, 298, 302, 407; 핵보복억제력 120, 173, 421; 핵보복억제전략 34
 핵분열(nuclear fission) 24, 31; 핵분열물질 47, 50-51, 64, 116, 154, 171, 223, 236-237, 239, 244, 247, 287, 427; 핵분열 연쇄반응 19; 핵분열폭탄 26, 27, 55, 172
 핵선제공격 35
 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107
 핵억제 26, 67-68, 70, 72, 210, 212-215, 286, 288, 291, 298, 407, 421, 438; 핵억제전략 35
 핵융합(nuclear fusion) 24, 31; 핵융합폭탄(수소폭탄) 172

핵 일차불사용(no first-use) 34-35, 41, 298, 301
핵평화론(nuclear peace) 67
핵확산금지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6, 11, 23, 35, 44-46, 51, 57-58, 61, 63-64, 67, 75, 77-78, 84-85, 87-99, 103, 108, 111, 115, 126-127, 138, 153, 155, 168, 170, 178, 183, 186-189, 191, 193-197, 200-208, 210, 215-216, 218, 232-234, 236-237, 241, 248, 254, 256, 258, 260, 272-275, 280-282, 288, 295, 301, 304-305, 310-313, 319, 323, 347, 350, 380, 384, 397; NPT체제 29, 44, 47, 52, 54, 74, 136, 200, 217, 401
핵확산 연쇄반응 22, 53, 56, 57, 60, 71, 212, 239, 275
핵별정책 324
헤즈볼라(Hezbollah) 240
협력적 위협감축(CTR: Cooperate Threat Reduction) 113, 221, 223-231
호메이니(Ayatollah Ruhollah Khomeini) 235
화학무기금지협정(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91, 153
후르시초프(Nikita Khrushchev) 27
후세인(Saddam Hussein) 141, 150, 235, 256
흑연감속로 171, 279-281, 304, 316, 319-320, 364-368, 374-375, 384
힐(Christopher Hill) 398